

[구AH-03] 조선시대 소규표에 관한 연구

민병희^{1,2}, 김상혁¹, 이기원¹, 안영숙¹¹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²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우리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소규표의 크기와 설치 위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40척의 규표(이하 대규표)는 1432년(세종 14)과 1437년(세종 19) 사이에 제작되어 간의대 서쪽 옆에 세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 소규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이순지의 <제가역상집>과 기타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해 소규표도 조선전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종실록>에는 동지와 보름에 대규표와 소규표를 이용하여 해와 달의 그림자길이를 관측한 기록이 있다. 이 연구에는 이러한 소규표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명종실록>의 기록과 현대 천체역학적 계산을 통해 소규표의 표의 길이는 전통적인 규표의 크기인 8척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규표는 경북궁 간의대 주변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규표 복원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AH-04] 의상고성(儀象考成) 항성황적경위도표(恒星黃赤經緯度表)에 실린 별들의 동정

진준혁¹, 김동빈¹, 이용삼^{1,2}¹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²충북대학교 천문대

의상고성(儀象考成)에 수록된 항성황적경위도표(恒星黃赤經緯度表)는 청대(清代) 흠천감(欽天監) 감정(監正)이었던 대진현(戴進賢, Ignatius Kogler, 1680-1746)이 3083개의 별들의 위치와 등급을 수록하여 1752년에 출판한 성표이다. 우리는 Yale Bright Star Catalogue 5차본을 이용하여 의상고성에 실린 별들을 동정하였다. 동정의 결과를 통해 성표의 정확도를 파악하였고, 일부 데이터가 오기되었거나 중복 기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황경에 따른 황위의 오차 분포를 통해 당시에 황적도 좌표 변환에 사용된 황도 경사각 값을 추정하였다.